

대구 공군기지(K-2) 이전 유감

장호근 (예 소장, 공사17기, 전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회 초대 연구위원장)



필자는 공군에서 조종사 생활의 대부분을 대구기지에서 했다. 1970년대 중반 대위 때 대구기지의 F-4 팬텀 비행대대로 전속된 이



[사진] 대구(K-2) 기지에 주기 되어 있는 한국공군 F-51D 꼬리날개의 투박한 K자가 인상적이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래, 군 교육으로 대구기지를 떠나기도 했고 서울의 공군본부 등으로 전속되었다가 다시 대구기지로 오기를 반복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비행단장까지 이곳에서 했다. 나의 두 딸도 모두 이곳에서 태어났고, 옛날 과수원이었던 관사 지역에서 뛰놀며 자랐다. 고로 우리 부부에게도 “케이투(K-2)” 대구 공군기지는 고향과 다름없다. 그런데 대구시의 팽창으로 고도제한 문제와 전투기 소음 등의 민원이 쇄도하여 마침내 기지 이전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고향을 잃어버리는 듯한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몇 년 전(2020년 8월) 한 언론 보도는, 대구 공군기지는 경북 의성·군위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새로 조성되는 군 공항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2028년경 완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적인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팬텀 비행기 이륙 소음 때문에 매주 월요일 전체 학생 조회를 운동장에서 못하겠고, 수업시간에도 시끄러워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으니 무슨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학교 위치를 확인하니 팬텀기가 이륙하여 기지 울타리를 떠나는 바로 밑에 학교가 있었다. 소음이 얼마나 심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학교가 언제 지어졌는가를 물어보니 몇 년 안 되었다고 했다. 나는 분명히 소음이 방해될 것을 예상했었을 터인데 왜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이 학교 건축하기 이전에 대통령 후보께서 K-2 기지를 이전한다고 공약을 해서 곧 그렇게 될 줄 알고 안 했다고 답을 하는 것이었다. 단장인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원이었다.

대구 공군기지(K-2)는 원래 일제 강점기에 대구 외곽에 일본군이 군사용으로 건설했고 ‘동촌 비행장’이라고 불렸었다. 내가 근무할 때만 해도 투박한 시멘트로 만든 납작한 일본군 비행기 격납고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제공한 한국공군 최초의 전투기 F-51D 무스탕(Mustang) 10대가 처음 출격했던 기지도 이곳이었다. (당시 이근석 장군 일행이 일본에서 미국 극동공군으로부터 무스탕을 직접 인수해왔다. 그러나 이 장군은 1950년 7월 불행하게도 전쟁 중 전사했다. 그래서 한국공군 창군 요원 중의 한 분이었던 이근석 장군의 동상도 이곳에 있다) 1950년 6·25전쟁 때에는 미 공군의 주요 작전기지로 미 공군이 ‘K-2’로 명명했다. 미 제5공군의 제8전투폭격비행단(Fighter-Bomber Wing)은 대구비행장에서 미 공군과 한국공군의 혼성부대를 조직했다. 한국공군은 F-51D를 비행했다.

그러나 무슨 조치라도 해야 할 것 같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월요일 조회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반색을 하면서 (내 기억에)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약 30분 정도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긴급 출동이나 작전 임무를 제외한 일반 훈련을 위한 비행은 그 시간에 이륙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장 선생님은 대단히 만족해했다. 이 약속을 내가 재임 중에 잘 지켰다.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해본 바가 없어 모르겠으나, 여하튼 기지가 이전한다고 하니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

1958년에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K-2에 배치되었다.

그 후 필자가 2000년도 초 전역한 후에 미국인 친구에게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소음 공해에 대한 민원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정부의 보상문제이기도 하지만 참모들의 대민 홍보 활동 부족이라고 충고를 해왔다. 미 공군 예비역인 그 친구는 선진국에서는 일반 야간비행 훈련을 계획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일자와 시간을 공지하여 양해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적극적인 대민 홍보 활동으로 제트기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달콤한 자유의 소리(Sweet Sound of Freedom)’로 주민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나에게 충고를 했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다른 나라의 경우였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공군에 확인하니 이미 여러 기지에서 일반 야간비행 계획을 주민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가웠다.)

1960년대 중반에는 공군 군수사령부가 주둔했으며, 공군의 최신에 전투기(F-4, F-16, F-15)가 도입될 때마다 신예기들의 초도 주둔 기지였다. 그 후에도 공군의 새로운 시설들이 이곳에 건설되고 주요 작전부대들이 배치되었다.

K-2 기지가 사라진다니 필자로서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그러나 현재 기지 주변 주민과 이전할 예정지의 경상북도 도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니 달리 할 말은 없다. 국민의 뜻에 따른 국가 정책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미 공동작전 기지(COB)로 미 공군 시설도 일부 있다.

이런 점에서 K-2 기지가 얼마나 역사가 깊고 중요한 공군기지인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K-2 기지는 전략적이고 작전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공군의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지인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필자가 대구기지 11전투비행단 단장 시절의 팬텀기 소음과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날 정훈참모로부터 인근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단장인 필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 인자한 모습의 전형

의 변화를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 소원이 있다.

아무리 현지 주민들이 원해서 경북 의성·군위로 K-2 기지가 이전하더라도 고도제한과 전투기 엔진 소음 문제는 언젠가 다시 거론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공군은 물론 정부와 국방부의 주민에 대한 적절한 사전 보상 조치와 홍보 활동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 결과 기지 예정지 인근 주민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높아져, 2028년경 이전할 새로운 기지 주변에서는 제트기 엔진 소리가 주민들에게 영공방위를 위한 “더욱 달콤한 자유의 소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필자의 서운한 마음도 가라앉게 될 것 같다.//

푸른창공에서 배운 소통 리더십

이영하 (예 중장, 공사22기, 이지저널 포럼 회장)



저는 2300시간의 전투조종사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이 모자란 100일을 하늘에서 보냈으며, 33년 반 동안을 하늘과 더불어

살아왔으니, 하늘은 저희 전투조종사들의 일터요 싸움터이기도 하지만 에이스가 되기 위한 꿈을 펼치는 무한한 공간이기도 하고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종사들은 전투기 내에서 목숨을 걸고 곡예를 합니다.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을 못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투조종사들은 소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통이 아닌 푸른 창공에서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푸른 창공에서의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인 2022년 7월 중순에 다시 영국 세계 에어쇼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이번에도 34개국 38개 팀에서 최우수상, 인기상 등 모든 상을 다시 석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공군에서 가장 대통을 잘하는 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군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손바닥 같은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소통이 왜 힘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종사답게 대통령해하겠다는 생각에 대통령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대통령하는 직업이 명강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는 길을 찾다가 이화여대 최고명강사 특별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조종사답게 대통령해겠다는 생각에 대통령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대통령하는 직업이 명강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는 길을 찾다가 이화여대 최고명강사 특별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대사가 국가기관 자문이나 하지 뭘 그런 과정에 참가하느냐고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길이라면 자세를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선 전투기 비행 소리와 무선 교신음은 신... 그 보다 나의 목숨도 목숨이지만 편대원들의 목숨도 지켜야 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는 소통이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시니어 아마추어 극단인 “날 좀 보소”의 단원이 된 것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는 계급장이 필요 없다는 생각, 바로 대통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임무 중 최고속도 1020키로까지 (고속버스는 100킬로로 달리지요. 고속버스의 10배 속도로 눈을 깜박하면... 휴전선??) 기동하면서 편대장과 편대원 간에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10.26일과 10.27일, 그리고 2015년 1월 17일과 1월 18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시니어 아마추어 극단 “날 좀 보소”의 야심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출연 배우들과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 연극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을 넘어 대통령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전투조종사가 잘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연극배우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배우를 배려하는 일... 바로 대통령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짓으로... 볼 틈도 없습니다. 무선 교신으로 하지요!!

소통(대통)은 경정입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와도 소통해야 하고, 통제실과 소통을 잘 해야 하며, 동료들 특히 부하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타는 비행기를 애기라고 부릅니다. 애기에 탑승하기 전에 무언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조종 장갑으로 애기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특히, 동료들/부하들과의 소통은 안전한 비행과 훌륭한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기동 중 대형유지는 1.5미터 간격입니다. 초긴장이지요!! 눈 깜박할 사이에 부딪쳐서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ㅎㅎ)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귀는 두 개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듣는 것은 말하기보다 두 배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두 배 하려니...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소통의 대가, 소통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1시간짜리 토크쇼에서 10분 정도만 말한다 합니다. (비결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공군 에어쇼팀은 세계적으로 가장 소통을 잘하는 팀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블랙이글스 에어쇼팀이 공군 창군 65년 만에 최초로 국제 에어쇼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2012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영국 와딩톤 국제에어쇼, 리아트 에어쇼, 판보로 에어쇼 등에 국산 초음속전투기로 참가하여 세계가 놀라는 소통으로 25개 참가국 공군 가운데 최우수상과 인기상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석권함으로써 국력을 과시하고 공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항공기 수출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목숨을 건 조종사들의 연습과 소통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소통은 연습이다”를 몸소 실천한

그래서 리더는 그 누구보다도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소통은 대통입니다.

여러분!!!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게 된 디딤돌 역할을 했던 국가 행사였지요?

1981년 독일의 바덴바덴이라는 소도시에서 서울올림픽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9월 15일, 서울올림픽 박세직 조직위원장의 주관하에 전 준비 과정 참여 요원들의 합동회의가 올림픽 주경기장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령으로서 서울올림픽 축하 비행 담당관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에 따라 회의는 잘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조직위원장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을 잘하여 국가급 행사의 성공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사로운 감정이나 고집을 버려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잘 협조가 안 되는 분야를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그 당시 나름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오펜기 계양 시점에 맞춰 석촌호수 상공 10,000피트(3,300미터)에다 비행기 5대로 오펜기를 그리는 것과 성화가 점화되는 시점에 A-37 항공기 5대가 성화대 직상공을 지나가면서 오색연막을 뿌리면서 올림픽을 축하하는 임무였습니다. 제가 세계인들에게 올림픽 축하비행을 정확한 현장 도착시간에 맞추어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올림픽 성화 최종주자와 주 경기장 남문으로부터 입장하여 트랙을 한 바퀴 돌아 성화대 도착 시까지 초단위로 소요 시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식 전에 비밀사항 10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최종성과 주자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같이 연습할 기회도 마련해주지 않아서 축하 비행을 제대로 하기

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직 위원장께서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신 결과, 전 세계인들에게 성공적인 축하 비행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참석하여 종합예술을 만드는 작업인지를 소통과 소통이 이어지고 때로는 소통을 뛰어넘는 더 큰 소통을 이루어내야 임무가 성공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산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같은 세계적 행사나 국가급 조직에서는 소통을 뛰어넘는 대통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지도자급 위치에서는 더욱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뛰어넘어서 더 큰 소통을 이뤄야 합니다. 소통이 아닌 대통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88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으며, 60여 년 만에 원조받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통의 리더십이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연습이다. 소통은 경정이다. 소통은 대통이다.

이상 3가지 측면으로 소통의 리더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은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기업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꼭 필요한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과 하는 소통보다 위와 옆과 아래와 동시다발적으로 대범하게 통하는 리더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동료들을 배려하는 대통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떨려 귀환시 어떻게 착륙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의 동료였던 임택순전우는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강하며 평소 온순한 성격에 유머가 넘쳤다. 계속되는 동족살상의 처절한 싸움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먼저간 전투의 뭉까지 적에게 갇아줄 것을 다짐 한다.

휴전일(7.27) 이른아침 90회 출격을 하며 고성북부 351고지 지상군 엄호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쉼스 한 잔을 마셨다.

다시 연락이온다. 첫출격임무 완료후 밤이 마를 겨를없이 91회 출격을 하였다. 지난번 동료전우가 적의 대공사격으로 산화한 장소 부근이다. 다시금 비통한 심정이 살아나며 적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의 마음을 가다듬어 목표물을 명중시키고 기지로 돌아왔다.

점심식사후 우리에게는 또한번의 출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기지에 있는 모든 탄약을 소비하라고 외치며 92회째 마지막 출격을 시작 하였다.

전쟁중 희생된 선후배 그리고 동료들의 영혼에 대한 보답을 위해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상포대와 병력집결소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며 나의 마지막 출격은 이렇게 끝났다.

항공기 엔진을 끈 후 정비사가 비행기로 뛰어올라오며 성공적인 임무완수와 무사귀환을 축하해 주었다.

작전에 임하며 정비사와 모든 지원부서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며,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비행안전은 부대내 전 장병에의해 이루어짐을 실감 하였다.

출격과 귀환시 이번 비행이 나에게 마지막 최후의 비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의와 각오로 최선을 다짐하였다.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을

기원 하였다.

돌아보면 매번 출격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위의 글은 이배선 전우가 미주에 이민온 후 전쟁시 개인 출격일지를 보며 ‘빨간마후라의 회상’이라는 어느 전투조종사의 이야기 책자와 미주전우회 모임서 증언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이배선 전우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월남하여, 1949년 공군에 입대 공사1기로 한국전쟁시 전투조종사로 92회의 출격을 하였다.

1992년 미주로 이민와 LA에서 여생을 보내시다 최근에는 한국으로 역이민 후 가족과 지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로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전쟁시 우리민족과 국군의 엄청난 희생과 미국을 포함 유엔군의 희생을 토대로 오늘날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었다. Freedom is not free 휴전69주년을 맞는 2022년7월27일 현재도 자주국방이 미 완성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력과 함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확대 발전 시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함께하며 조국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 지기를 소원한다.

미국은 2009년부터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지정하고 조기를 계양하고있다.

이배선전우의 출격과 회상의글을 전파하며, 6.25전쟁 참전국군과 참전공군전우 선배님들께, 머리숙여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참고자료 : -빨간마후라의 회상(이배선),-전쟁기념관 자료//

한국전쟁과 휴전 69주년 -노병 빨간마후라의 회상

심인태 (예 소령, 공사30기, 미 LA지회장)



1950년6월25일 북한의 전면기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국군의 필사항전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며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열강들과 경쟁하며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며 미국과는 확고한 안보동맹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의 균형과 우위를 유지하고있다.

한국전쟁시 공산화를 막기위해 열악한 장비의 국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유엔군의 참전은 우리민족에게는 실로 엄청난 행운이었다(유엔군 총전사자 37,645명 중 미국은 33,642명이 전사하였다).

올해는 한국전쟁 휴전 69주년을 맞이하는 해 이다. 한국전 당시 전투조종사로서 참전하며 휴전당일 3회의 무스탕 전투기로 3회출격을하며 전투에 참가했던 전투조종사(이배선 공사1기)의 출격일지 일부를 소개한다.

(휴전이 되던날)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조인된 휴전협정으로 모든 전투가 중지된다.

휴전이 발효되면 전선이 휴전선이 되어 영토가 정해지게 되므로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기위해 적군의 야간침공에 의해 빼앗긴 땅을 주간에는 아군 공군의 엄호하에 지상군이 재탈환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계속 되었다.

휴전이 가까와지며 우리공군도 주로 지상군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휴전당일전 까지 무스탕(P-51)전투기로 89회의 출격을 한 이배선 공군전우(공사1기)는 4개월전 같은 편대기로 강원 고성북쪽지역 아군 지상군지원 공대지 임무중 산화한 동료전우(임택순)의 모습이 떠올랐다.

1953년 3월6일 지상폭격을 위해 무스탕 편대기 4대가 임무중 나는 3번기로(기록에는 4번기로 되어있음) 강하 폭격후 귀환중 앞선 동료 2번기가 보이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편대장기와 공격지점으로 돌아가 확인하니 화염에 휩싸인 태극마크의 동체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큰충격과 비통한 마음으로 손발이

전술핵 위협 대처방안

김기영 (대령, 공사46기, 공군51항공통제비행전대)



두 사람이 대결 중일 때 상대방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다. △상대방이 때리려고 하면 미리 알고 먼저

때릴 능력 △나를 때리면 내가 더 아프게 때려줄 힘 △상대방의 주먹을 잘 피하거나 막아낼 회피력 △월등히 힘이 센 친한 친구의 존재 △맞아도 별로 아파하지 않는 멧집이다.

처음 3가지는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핵·미사일 공격전에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표적처리체계)’과 ‘대량응징보복(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를 뜻한다.

이는 국방부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역량과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구축이다. 네 번째 월등히 힘이 센 친한 친구, 즉 굳건한 동맹의 힘 시현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핵·미사일 위협 연합 억제·대응능력 강

화’를 통해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강한 멧집, 다시 말해 적의 핵·미사일 공격 이후 우리 군의 전투력 복원 능력은 어떠한가? 올해 초 수십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다종의 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는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상호확증 파괴 우려로 쉽게 사용하지 못했던 ‘전략핵’에 비해 ‘전술핵’은 피해 규모 최소화를 통해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핵으로 부상돼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재래식 무기와 비교해 핵무기의 가장 큰 특징인 방사선 피해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정확한 이해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핵무기의 4대 효과에는 폭풍(50%), 열복사선(35%), 초기 및 잔류 핵방사선(14%), 그리고 전자기파(1%)가 있다. 이 중에서 방사선에 노출 시 각종 치명적인 유전병 등에 걸릴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군사작전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지휘관은 방사선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지역에 투입할 임무요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임무보장을 하기 위한 작전노출지침(Operational Exposure Guidance)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총알'로 불리는 무색·무취의 방사선 선율과 선량을 탐지·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방호복 등을 확보하고 민·관·군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오염 피해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방사능 오염 및 방사선 피폭자 후송 계획을 수립하고 증

상 완화와 치료를 위한 약품 비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오염지역을 즉각·작전적 수준의 제독 교육 및 훈련을 평상시에 지속해야 한다.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2.9.28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때 편도선 수술을 받고 중학생 때는 맹장 수술까지 받으며 딱하게 자란 내 아들은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다.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이 어미도 아들과 한 몸인 듯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그렇게 어렵게 기른 내 목숨 같던 아들이 결혼하고 점차 내게서 멀어지니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듯 허탈하다. 그런데 귀여운 손주들과 며느리와도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니 마음 불일 데가 없는 것 같다.

는 나이만 많아졌을 뿐 마음은 별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소견이 좁아지니 말이다. 자식들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괘씸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섭섭하니 어찌면 좋은가. 내 자식들이 큰 불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을 썩이는 일도 없으니 감사해야 하는데 어찌 서운함만 깊어져 가는가. 정신 수양을 해야겠다. 자식들에게 연연하지 말자. 모든 것에서 초월하는 마음을 갖고 애착을 끊으며 인간은 누구나 혼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서서히 이 세상 떠날 준비도 해야겠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오대산 선재길 산책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주)토브넷회장)



강원도 오대산은 해발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의 다섯 봉우리 아래 월정사, 상원사를 비롯하여 수

明堂)으로 불리는 고찰이다. 월정사로 들어가려면 전나무 숲길을 넘어야 하는데 일주문부터 대략 1km의 S자로 굽어있는 소슬한 산책길이 너무도 아름답다. 캐나다 학자 마크 베르만은 "숲속을 거닐면 인지능력이 20% 더 향상되고, 숲의 녹색 덕분에 뇌의 알파파가 잘 분비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행복감을 주는 활동에는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등이 있는데 걷기가 으뜸이라고 한다.

많은 사찰이 있는 산이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8.8km의 선재길이 있다. 조선시대 임금들도 더위를 피해 산을 자주 찾았는데 특히 세조는 오대산 계곡과 상원사를 즐겨 찾았다. 선재길 산책은 현대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정보 홍수로 받는 스트레스를 힐링하기 위해 불자들이나 불자들이 아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걷기 좋은 길이다. 힐링은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온 생체시스템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내 마음과의 소통이다. 마음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을 돌아 보는 내 마음과의 소통에는 산책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천천히 걷는 동안 우리 뇌에는 학습과 기억을 다루는 부분의 혈류가 늘어나며 짧은 시간의 산책만으로도 주의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미국심리학회 연구 결과가 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고와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마음에 맺힌 것을 풀고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산책 코스로 오대산 선재길이 좋은 것 같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욕심에서 생긴 샅된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기 좋은 전나무 숲길을 지나 선재길까지 걸어보자. 마음을 발바닥에 집중하게 되면 열을 심장과 가장 먼 발까지 내려줄 수 있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체가 건강해짐으로써 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일거양득이 된다.

상원사에서 내려오는 선재길에는 사시사철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상원사에 참배를 올리기 위한 불자(佛子)들이나 연꽃을 닮은 오대산의 산세를 담으려는 등산객(登山客)들을 가리지 않고 쉼터가 되어 주는 길이다. 좀더 내려오면 단풍나무길이 아름답고 전나무 숲 우거진 곳에 월정사(月精寺)가 있다. 월정사는 심산명당(深山明堂)이고 통도사(通度寺)는 야지명당(野地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선재길을 산책하게 되면 여러분은 대지와 교감하며 소통하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책길은 필자도 디지털 혁명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코로나19로 쌓이는 우울감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자주 찾는 명상길 중의 하나다. 여러분들도 오대산 선재길을 산책하며 온갖 번뇌를 내려놓고 힐링 공간을 찾아 삶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외손자의 생일이었다. 그 녀석은 내 손으로 두어해를 길렀기에 정이 더 각별했다. 녀석도 어릴 때는 좋아하는 사람 첫째 순위가 이 외할머니라고 했었다. 녀석의 생일이 지나고 4일 뒤가 내 생일이라 합동으로 축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딸의 집을 나서며 녀석을 끌어안았다. 나는 언제나 그 녀석이 어릴 때처럼 사랑스러워서 안아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인 녀석은 내 포옹을 슬쩍 거부했다. 나는 어찌나 서운한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런 나를 위로했다. 사춘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4일이 지나 내 생일 날 아침에 딸이 축하 전화를 했다. 나는 사위와 외손주들도 전화나 카톡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 종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사위도 바쁘고 손주들도 공부에 빠져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서운함이 가시지를 않는다. 어린 친손주들이 전화로 사랑스럽게 생일축하 노래를 합창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슬픈 심정이었을 것이다. 미리 함께 밥을 먹었고 선물도 받았는데 당일에 또 전화해 주길 바라는 것은 늙은이의 노망일까.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내가 애가 되어가는 건가. 손주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시 살갑게 해주려나.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거나 할까. 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앓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지인들과 모이거나 만나서도 안 되고 밖에서는 산책길 걷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나다니기가 조심스러워 매일 집에서만 지내니 늙은이 마음이 더 소심해지는가. 나이가 어느덧 칠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인가. 자꾸만 우울해진다. 코로나19만 빨리 사라져도 지인들과 어울려 조금은 즐겁게 지낼 텐데 그러지 못하니 사는 게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래도 손주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서 제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인생은 무엇보다 효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손주들이 사회에 이바지도 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한이 없다.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가 금쪽같은 내 손 손주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생각을 긍정적으로 넓고 깊게 가지며 의연해지자. 그렇게 결심해보지만 그게 잘 될지 자신이 없고 나 같은 노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덧없지만 하니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없다.//

당당하게 '자람'을 지속하는 '나이 늙'을 통하여 백세시대를 맞이하자

안호원 (혜인시대 논설위원, 서울 벤처대학원대학교 주임교수)



주말 오후 모처럼 차 한잔을 마시며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은 필자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교에 다니는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루, 한 주일, 한 달을 지내고 또 한해를 보내며 졸업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왜 그리도 길게만 느껴졌는지. 그러다 육십갑자 한 바퀴 돌고 돌아 환갑의 나이가 되고, 칠순을 넘기는 나이가 되다보니 "시간은 10대에겐 시속 10킬로, 20대는 20킬로, 60대는 60킬로, 70대는 70킬로의 속도가 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새삼 절실하게 다가온다. 어릴 적 질척대기만 했던 시간의 흐름을 어느덧 '쏠살같은' 세월의 속도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과 관련된 불교용어 중 '찰나'와 '겁'이라는 낱말이 있다. 약간 달리 각색되어 전해지는 이 낱말들의 본디 뜻은 가히 중생(衆生)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찰나(刹那)'는 산스크리트어로 순간(瞬間)을 의미하는 '크샤나'의 음역으로 1찰나가 75분의 1초에 해당된다고 한다. 어쩔 우리에겐 '눈 깜짝할 새'가 더욱 실감케 하고 애교스런 낱말이다.

하루의 24시간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다만 '특수상대성이론'의 아인슈타인도 언급했듯, 그 흐름을 느끼며,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의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멈춰버린 듯 지루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아쉬워하기도 한다.

반면 '겁(劫)' 또한 산스크리트어의 '겁파'에 음사된 것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겨자 씨' 혹은 '바위'의 비유가 동원되기도 한다. 한 예로 1겁은 대략 '잠자리 날개보다 얇은 천으로 둘러싸 사십 리 되는 바위를 3년에 한 번씩 스쳐서 그 돌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니 '억겁(億劫)' 혹은 '영겁(永劫)'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의 시간, 그 무한함을 말한다.

여행길에서 가이드가 한 말이 기억난다. '짜 막힌 도로를 가장 빨리 지루하지 않게 가는 방법'을 묻는 퀴즈에서의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었다.

어릴 적에는 시간의 흐름이 더디기만 한 것 같다. '언제 빨리 커서 어른이 될까?' 학

시간은 절대적이지만, 시간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는데, '일각이 여삼

노인의 삶

한인애 (김병환 전 황성회장 가족)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손자 녀석은 작별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는 제 아버지의 차 안으로 들어가 앉는다. 5학년인 손녀도 마찬가지다. 오면 반드시 가야하는 현실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파악하고 적응했기 때문임을 알면서도 섭섭함이 가슴속으로 번진다. 입학하기 전까지는 시골 조부모의 집에 오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는 게 먼저였고 제 할아버지 곁에서 벗어나질 않았었다. 그리고 저희들 집으로 갈 때는 가지 않으려고 울기도 했었다.

총 하니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간다. 나는 아들의 차 문을 열어 손주들의 얼굴을 한번 더 보고 잘 가라고 말하며 서운함을 털고자 한다.

그런데 이제는 시골집에 와도 휴대폰 게임이나 TV 시청에 열중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뒷전이다. 올 때나 갈 때도 인사를 대

이 아이들이 제 어미의 태중에 들었음을 알았을 때 그리고 첫 대면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던가. 힘겨운 세상 끈질기게 살아온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친손자를 처음 보는 날 양복까지 갖추어 입었었다. 그리고 손주들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삶의 의욕이 일었었다. 손주들이 없는 노인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싶기도 했었다. 그렇게 귀하고 여려쁜 손주들이 이젠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순리겠지만 늙은이의 마음은 대견하면서도 외로워진다.

천식같은 감기를 달고 살다가 초등학교

추'란 말처럼 애간장 태우며 기다리는 마음과 달리 이것저것 따져볼 겨를도 없이 '쏟살같이' 지나가는 한 해를 보내며 허탈해하기도 한다.

여성 평균 수명이 인류사상 최초로 90세를 넘어섰고, 남성은 84세에 이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 수명이 증가 추세로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가장 빠르고 높게 증가하여 세계 최장수국가가 되리라고 예측된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관심을 갖고 고령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대처해야 할 것 같다.

행복의 다섯 가지조건(五福) 중에 첫째가 '장수'다. 불행의 여섯 가지 요인(六極) 중 첫째도 '단명'이다.

결과적으로는 오래 산다는 것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소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초(超)고령사회가 현실화 되면서 '장수(長壽)가 반드시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나이 듦은 구체적으로는 '자람'과 '늙음'으로 구분해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면 더 좋아지고 더 커지면 자란다고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나빠지고 더 작아지면 늙는다고 생각, 통상 10~20대는 한 살을 더 먹으면 자랐다고 하고, 70~80대는 한 살 더 먹으면 늙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몇 살까지는 자람이고, 몇 살까지는 늙음이 될까? 필자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자람과 늙음'을 결정짓는 것은 외모에 비취지는 형태적 변화가 아니라 내부에 깃든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자람의 시기에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 왔지만, 늙음의 시기에는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피동적으로 밀려나 버린 것은 아닐까 되새겨보게 한다.

백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에게 나이 듦이 끝없는 자람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나이든 사람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나이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자' '주자' '배우자'의 의지로 자신을 책임지는 독립을 추구할 때다.

나이 듦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자람을 통해 세상을 당당하게 개척해나가는 개척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배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나이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배움의 역량을 확대하고 삶에 보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이 나이에 배워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자포자기적인 핑계가 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필자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방송대학을 다니고 있다. 지난 2020년 주로 젊은이들만 참가하는 서울대학장배 가요제에 참가했다. 상(賞)을 타기보다는 젊은 학생들만 참가한다는데 '오기'가 발동, 나이든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청을 했다.

가요제인데 가곡 '비목'을 애절하게 불렀다. 출전한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예상외로 '대상(大賞)'을 받으면서 장학금도 받았다. 노익장을 과시한 것이다. 나이 탓하며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흐르지 않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공평하게 단 한번, 태어나고, 죽게 된다. 흔히 나이든 어른들이 "네 나이만 되도..."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더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다.

"네 나이만 됐어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배움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당당하게 '자람'을 지속하는 '나이 듦'을 통하여 백세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꾸준함의 배움을 통해 더 이상 단순 수명연장이 아니고, 진정한 '기능적 장수'를 추구하는 웰 에이징 나이 듦을 이룬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최장수 국가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작은형은 신바람이 났는지 논농사만으로 동생의 학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논외의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농한기인 겨울에 추위도 있고 소달구지를 끌며 시내를 돌아 쓰레기를 걷어다가 밀거름을 만들었다. 밭에는 수박, 참외, 시금치, 생강 등의 특수작물을 키웠다.

작은형은 어린 나이에 걸어 다니는 동생의 이십 리 등하포퉁이 힘들다며 중고 자전거를 사다 주었다. 조그만 체구에 큰 자전거에 매달려 학교를 다녀오는 동생의 모습을 대견해 하시며, 주말이면 언제나 자전거 대수리를 하였다. 모두 분해하여 기름을 치고, 조이고, 점검하는 주간점검의 날인 것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작은형은 군대에 가게 되었다. 입대하는 날 나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내가 제대하고 오는 날까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에 갈 수 있다. 네가 공부만 잘하면 형이 어떻게 하든 유학도 보내주마."

간곡한 부탁을 동생에게 남겨놓고 훈련소로 떠나는 형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너무 쓸쓸하기까지 했다.

그 후 3년이 지나고 작은형이 제대하여 집에 돌아오는 날, 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삼류고등학교 진학에 성적도 형편없었다. 그것은 공부만 외쳐대던 무서운 형이 없는 세상이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가 되어 제멋대로 놀기만을 일삼았기 때

문이었다.

희망을 잃어버린 작은형은 결혼 후 부산으로 떠났다. 부산은 작은형이 잠깐이었지만 군대 생활을 했던 곳으로, 지칠 줄 모르게 달려드는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와 타향 갈매기가 함께 어울려 사는 낭만의 항구도시로 미래의 행복을 꿈꾸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타향살이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서면 개천가에 전셋집을 얻어 살며 사상 주물단지에서 힘든 노동일을 하였고, 형수는 신발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4남매를 낳아 모두 출가시켰고,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만큼의 여유 있는 노년을 맞았다.

그런데 햇살 멍멍뭉뭉 남녘 해안을 출발하는 봄날, 비보를 전해 들었다. 전립선암이 전이되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마지막 얼굴이나 한 번 보고가라는 형수의 전화 내용이었다. 다급히 내려간 부산병원의 입원실에서 만난 형님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동생 무엇 하러 먼 곳을 왔어! 나 괜찮아!"하며 도리어 나를 격정하였다.

형님이 답답하다고 하여 휠체어에 태우고 아래층 면회 대기실에 내려와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바라보는 창밖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고, 그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을 타고 위태롭게 회색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자유로운 날갯짓이 먼 바다로 가물거리며 사라져가는 외항선의 뒤를 쫓아가고, 형님의 눈빛이 갈매기 등에 실려 갔다. 그 길이 이승의 마지막 길인 줄도 모르고.//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이윤우 (예 소령, 공사6기생 회장, 한국항공기술협회 이사)

하늘에서 펼치는
한국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파란 하늘에
환상적인 수를 놓는
독수리 형제들의
뿔내는 날개짓

조종사의 열정과
땀의 결정으로
아로새긴
황홀한 곡예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바친다는
대한남아의
숭고한 기상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하늘에서도
뜨거운 감탄과
환호를 자아내는

블랙이글스의
불멸의 곡예비행



부산갈매기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5남매 중에 외동딸 누나 하나를 빼고 바로 위의 작은형은 7살 차이로 뛰어난 체격조건에 힘입어 장사여서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였

으나, 이웃 마을에는 소문난 건달로 통했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는 규율부장을 도맡아 하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가지고 노는 딱지며 구슬을 모두 빼앗아 하얏길이면 한 아름씩 나에게 안겨주었다. 그러한 작은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자퇴하여 시내에 있는 철공소에 들어갔다. 철공소란 힘으로 하는 일이라 힘 좋은 작은형을 사장도 좋아했다. 매일 새까만 얼굴로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새벽에 집을 나섰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다니던 철공소는 망하고, 일을 해준 노임 대신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철거자재 철판 몇 장을 소달구지에 싣고 왔다. 형의 말

에 따르면 그것도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내가 보기에 농촌에서는 쓸모없는 고철로 이곳저곳으로 밀려다니는 애물단지일 뿐이었다.

작은형은 농사일이 한창인 시절에도 동생에 대한 희망의 열정이 대단하여 밤마다 애물단지 철판을 칠판 삼아 하얀 백묵(白墨)으로 수학 문제며 한자를 써놓고 새벽까지 공부를 시켰다. 작은형의 바람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자란 막냇동생만은 서울의 권위 있는 대학에도 보내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었다.

작은형의 기대대로 나는 공부를 잘했다. 2학년을 마치고 4학년으로 월반하여 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잘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당시 시골에서 중학교에 가는 비율은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어 못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학교부터는 시험제도였기 때문에 시험에 꼭 붙어야만 중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러니 70명의 한 반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인원은 겨우 10명 정도였다.